



I 이달의 소식

- | | |
|---------|----|
| 1. 모임안내 | 1쪽 |
|---------|----|

II 내용

- | | |
|--|----|
| 1. 노아의 홍수 (18) 노아홍수 당시 사람들 - 이재만 | 2쪽 |
| 2. Articles (8) 암석의 언어 - 이종현 역 | 4쪽 |
| 3.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26) 스트레스 극복의 길 2 - 김경태 | 7쪽 |
| 4. 새로 바라본 그랜드캐년 (1)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역 | 9쪽 |

인사말



다니엘서 7:25a에 보면 “그는 높고 높으신 분께 거만하게 대항해 큰 소리치며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을 억누를 것이며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He will speak out against the Most High and wear down the saints of the Highest One, and he will intend to *make alterations in times and in law*’).”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말세지말인 오늘날 사단은 더욱 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진화를 세뇌시키고,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부인하면서 오랜 지질시대를 주입하고,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일인 양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윈의 출생 200주년으로 진화론자들이 수많은 대대적인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천여 년 전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2009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간사 길 소 희 올림 -

1. 모임 안내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정기 스터디모임(1, 3째주 목요일)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과학 자료를 발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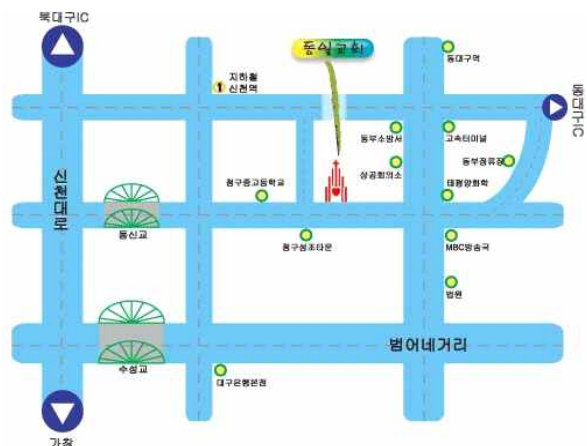
일시: 2009년 3월 5일(목)

장소: 동일교회 복음센터 306호

☎ (053) 743-6058

내용: The Book of Genesis

(by Chuck Missler)



노아홍수 당시 사람들 (The People in the Days of Noah)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함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 6:5-6)

Then the LORD saw that the wickedness of man was great on the earth, and that every intent of the thoughts of his heart was only evil continually.

The LORD was sorry that He had made man on the earth, and He was grieved in His heart. - Genesis 6:5-6, NASB

홍수이전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아담(Adam)에서 노아(Noah)까지 내려오는 족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보여준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사람(아담-셋-에노스-게난-말랄랄렐-야렛-에녹-므두셀라-라멕-노아)*에 대하여 자식을 낳았던 나이와 죽은 나이를 꼬박꼬박 적어나가고 있다.

성경은 ‘아담의 칠세 손 에녹’(유 14)을 언급하며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사실임을 분명히 말한다. 그 족보가 별다른 서술 없이 단순하게 적어내려 갔다.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언급된 사람이 두 명에 눈에 띄는데 바로 에녹(Enoch)과 라멕(Lamech)이다.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간 두 사람이 바로 에녹과 엘리야(왕하 2:11)이다. 에녹에 대하여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 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Enoch walked with God; and he was not, for God took him)’(창 5:24)라고 하며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함축적으로 그 이유를 표현하였다.

* In general, this is what the first 10 names of the Bible can read when each name is rendered one after the other in succession.

“A man is appointed, a man of sorrow. The Blessed God shall come down teaching that His death shall bring the grieving rest.”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이름을 연달아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다.

“한 사람, 즉 슬픔의 사람이 기름부으심을 입었다. 그 축복의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의 죽음이 슬퍼하는 이들에게 안식을 가져올 것임을 가르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에는 에녹은 '믿음'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고 하였으며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고(11:5)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유다서에는 에녹이 '예언'(14)하되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모든 자들을 심판할 것을 예언했다고 추가로 묘사하고 있다.

에녹이 당시에 심판을 예언하였다는 것은 홍수이전이므로 물심판에 대한 예언이었을 것이다. 홍수 이전의 타락 정도에 대하여 엿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녹의 아들인 므두셀라(Methuselah)로부터이다. 에녹의 아들이며 노아의 할아버지가 되는 므두셀라는 969살까지 살았는데 이는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도표로 그 나이에 맞춰 그려보면 노아홍수가 나던 해에 므두셀라가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므두셀라의 이름이 '그가 죽었을 때 심판 혹은 죽음이 올 것이다(when he died, judgment or death to bring)'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으로 넘기기는 어려운듯하다.

이는 에녹이 예언하는 가운데 자신의 아들의 이름 속에 심판의 때를 내포시켰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므두셀라의 죽음까지 심판을 미루셨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므두셀라의 아들이며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This one will give us rest from our work and from the toil of our hands arising from the ground which the LORD has cursed)'(창 5:29)하며 자식의 이름을 노아로 지었다.

여기서도 에녹을 포함하여 므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이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에 대하여 여전히 쉽지 않은 수고로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베드로 후서에는 홍수이전 사람들이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했으며 이로 인해서 그 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4-5)고 말한다. 그러므로 홍수이전의 그 당시 사람들을 묘사하는 내용을 열거하면, 죄악이 가득 차고, 모든 계획이 악하고, 경건치 않았으며, 하나님의 창조사실을 일부러 부인했던 세상이었다.

그리고 그 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말씀 속에서 그 극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족보를 통하여 그 죄악 된 상황 속에서도 수고롭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이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할 수 있다.

출처: <http://www.kacr.or.kr/library/itemview.asp?no=2303¶m=type=C|authorname=이재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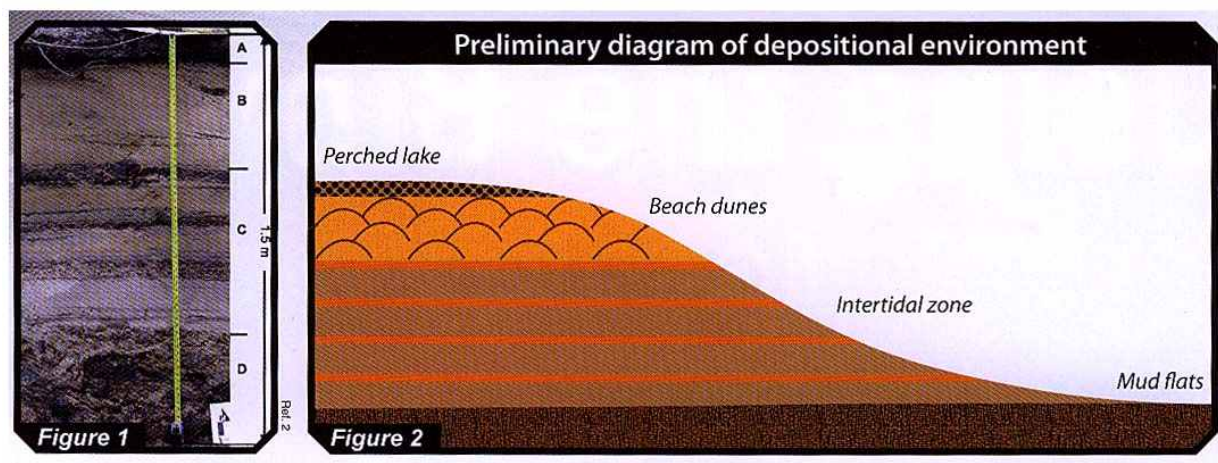
암석의 언어 (Rock Language)

- 그런 것이 존재하는가? (Is there such a thing?)

“암석이 외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런데 **당신은** 암석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자 그럼, 잠시 동안 사진(그림 1)에 있는 퇴적물을 살펴보자. 그 두께는 1.5m이다.

퇴적물의 바닥부분에 D로 표기한 것은 어두운 색에 괴상(massive)이며, 분명한 구조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단면은 C로 표기되어 있는데, 몇 개의 수평층을 갖고 있으며, 일부는 밝은 색이고 일부는 어둡다. 그 위에 B로 표기된 단면은 대부분 밝은 색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약간의 물결자국과 사구(dunes)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체 층연속체(sequence)는 상부에 A로 표기된 어두운 층이 덮고 있다.



지질학자들은 것처럼 노출된 암석으로부터 과거의 환경을 해석한다. 그 개념은 암석이 과거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말하는 것은 사람이고, 암석은 침묵한다. 즉, 견해에 따라서 해석이 결정된다.

단면에 보이는 이들 퇴적층을 해석해 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다음과 같다:

“밑바닥 퇴적물은 고대 해안선을 따라 있는 얇은 개펄에서 퇴적되었다. 벌레들과 다른 유기체들이 진흙 안에서 먹이를 찾아 스쳐 지나갈 때 퇴적물을 교란시켜서 분명한 구조를 남기지 않았다.”

“그 지역에 퇴적물이 더 쌓이면서 해안선이 점차 바다를 향해서 나아갔고, 개펄이 해변 모래로 덮였다. 조류(tides)의 영향을 받은 해변 지역에 평평한 지층이 퇴적되었다. 어둡고 밝은 지층들은 해수면이 어떤 때는 상승하고 어떤 때는 하강한 시기, 즉 소규모의 급작스런 해침(transgression)과 해퇴(regression)의 시간을 나타낸다.”

“퇴적물이 더 쌓였으며 해안선이 계속해서 바다 쪽으로 진행되었다. 결국 그 지역은 해변의 꼭대기에서 작은 모래 언덕으로 덮였다. 온화한 바람이 해변 위로 모래가 이동하는 것을 도왔다. 모래 언덕 바로 너머에 자리 잡은 호수 환경에서, 그 부근의 식물에서 나오는 잎과 작은 가지들이 얇은 늪지에 쌓였다.” 그런 환경을 설명해 주는 그림 2에서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그림 1, 2)

지질학자들은 암석층으로부터 과거의 지질학적 환경을 틀에 박힌 듯이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이것이 그들이 하는 일의 일부이다. 한 가지 예로, 그들은 3억 년 전을 소위 석탄기로 잡아놓고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다의 경계를 따라, 침식되는 산맥으로부터 많은 양의 암설(쌓인 파편)이 강에 의해 운반되어, 넓은 삼각주와 삼각주 습원(delta swamps)을 형성한다.”

우리는 종종 매스컴, 관광 안내 책자 및 학교 교과서에서 그러한 설명을 읽는다. 그러한 설명은 매우 생생해서 마치 지질학자들이 그곳에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본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면, 그림 1의 모래 퇴적물에 관한 **우리의** 해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썩 잘하지 못했다. 비록 설명이 그럴 듯하고 수궁이 가지만, 잘못되었다.

이 경우, 우리는 그림 1에 있는 퇴적물이 어떻게 퇴적되었는지 알고 있다. 사람들은 그것이 일어난 것을 보았다. 그 모래는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의 결과로 2005년 8월 29일에 뉴올리언즈 인근에 퇴적되었다.

그 허리케인은 폭풍해일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런던가 운하(London Avenue Canal)에 있는 제방을 터뜨려서,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일대를 물에 잠기게 해서 퇴적물이 쌓이게 했다. 우리가 해석한 단면은 인부들이 잔해를 청소할 때 그림에 표시된 2번 집 앞에서 촬영한 것이다.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터진 제방과 급류는 너무나 강력해서, 집 한 채를 바닥에서부터 들어 올려 35m(115피트) 떨어진 나무 있는 곳까지 이동시켰으며, 방향이 틀어지게 했다(그림 3에서 빨간 표시 한 집). 이틀이 지난 후에 제방의 갈라진 틈을 복구하기 시작했다.

물이 인근으로 넘쳐흘렀을 때 1.5m(5 feet)에 이르는 모래가 재빨리 쌓였다. 그 퇴적물이 나타내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친 서로 다른 환경이 아니라, 급격하게 변하는 흐름의 상태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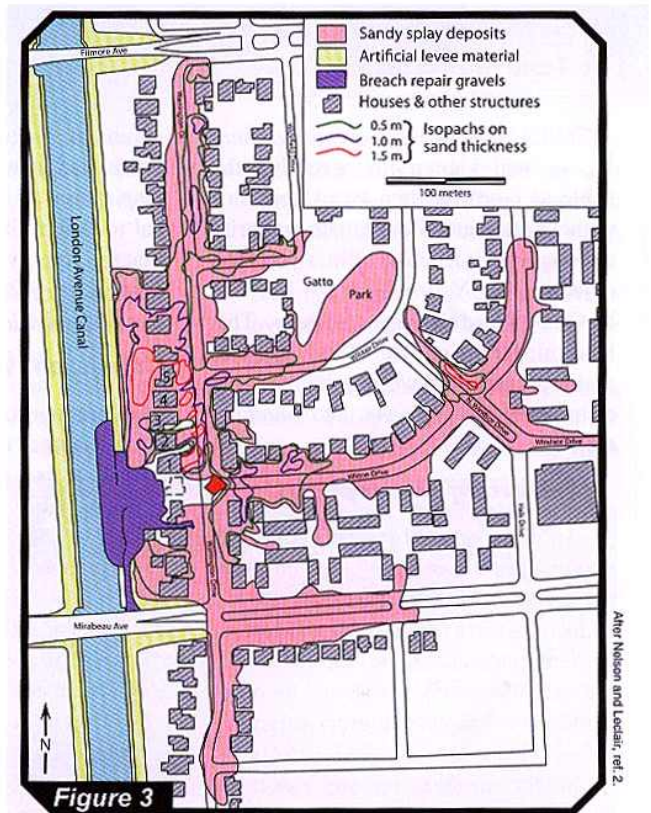
밀바닥 단면은 초기의 난류성 급류에 의해 그 지역으로 운반된 첫 번째 퇴적물을 나타낸다. 그 위에 있는 평평한 층들은 근방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속도가 빠른 물이 연속적으로 흘러서 쌓인 것이다.

사구가 있는 그 다음 단면은 물이 천천히 물러가면서 쌓인 것이다. 그리고 유기질의 작은 가지와 잎사귀들이 맨 위층에 남겨졌다.

전체적인 퇴적은 한 번의 격변 동안에 약 하루 만에 빠르게 쌓인 것이다.

글래스고우 대학(University of Glasgow)의 클레어 본드(Clare Bond) 및 영국에서 온 다른 연구자들은 지질학적 해석에 있어서의 인간의 편견을 조사했다. 200명 이상의 지구과학 전문가들과 상담을 한 결과, 그들은 한 개인의 과거의 경험이 지질학적 증거를 해석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냈다. 산업계에서는 지질학적인 데이터를 해석한 것에 근거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 그들이 직면하게 되는 위험을 알아야 한다.

명백히, 우리가 암석을 해석하는 방법은 과거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존한다. 과거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이 상세하고, 그럴 듯하고,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데이터 해석은 틀릴 것이다.



커다란 위험성은 격변적인 퇴적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있다.

그것이 현대 지질학의 상황이다.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은 노아의 홍수라는 거대한 격변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처음부터 정했다. 그래서 그들은 수백만 년에 걸친 안정된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암석을 해석한다. 이런 설명은 종종 논리적이고, 상세하고, 그럴듯하다. (비록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항상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것은 간과된다.)

하지만 성경에 전 지구적인 대홍수를 목격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해석이 잘못된 것임을 안다. 그리고 대홍수를 고려할 때, 그것이 증거들과 조화를 잘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암석을 해석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에 관한 참된 역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질학적으로 더 잘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알고, 그 메시지가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참조**



스트레스 극복의 길 2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특정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위의 여러 사람들을 보면 정년퇴직을 하고나서 정정하던 분이 갑자기 늙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부터 하는 일거리 없이 집에서만 소일하게 되면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이를 볼 때 신체적 노화와 각종 병의 발생이 마음에서부터 움을 알 수 있다. 심리적 안정상태가 깨어져 불안이 증가되고 정서적인 균형에 균열이 생기게 되어 마침내 생리적 변화가 오고 신체적으로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방어하려고 애를 쓰다가 여기에 잘 적응을 못하면 면역체계의 이상이 생기고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건강할수록 새로운 스트레스에 대항해서 극복을 잘 하지만 나이가 들고 힘이 점점 쇠약해지면서 자신감도 상실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스트레스가 찾아 올 때 이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몇 가지 말하고 있다. 먼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긍지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한다. 자기가 하는 일이 국가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일에서 보람을 찾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새롭게 닦쳐오는 일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싫은 일이나 어려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게 되고 하기 싫은 일을 마지못해 해야 한다면 스트레스는 일의 양에 비례하여 늘어날 것이다.

다음으로 불평불만을 마음에 두지 말고 발산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성적인 사람일수록 언짢은 일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그 일을 확대해석하여 더 큰 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럴수록 그 일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털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의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적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혼자서 살아갈 사람이 없다.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과 헌신을 힘입어 살고 있다. 이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가 사라질 것이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상대의 인품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이야기를 치우쳐 오해하게 되고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갈 것이다. 그리고 싫은 이야기를 듣거나 비난을 받아도 이성을 잃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근무할 때 유전공학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초대소장으로 수고하시던 H 박사님에게 어느 날 여러 사람이 비난하기를 '당신이 유전공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센터를 꾸려갈 수 있겠느냐'고 말할 때에 냉정을 잃지 않고 '날 때부터 유전공학 배운 사람 있느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배워 가면 잘 되지 않겠느냐'고 웃으시며 받아 넘기는 모습을 보았다. 과학자로서의 자존심을 밟는 면박 앞에서 태연히 넘긴 그 분이 존경스러웠다. 결국 그 분의 노력으로 지금은 생명공학연구소로 발전하여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 분은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스트레스를 쌓게 만드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화가 날 때는 심호흡을 하거나 열까지 세어 노여움을 푸는 일이 지혜로운 일이다.

우리말에 화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화를 다스리지 못해 생기는 병이다. 화가 나면 여러 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나고 몸의 각 부분이 갑작스런 자극으로 균형을 잃게 되어 병이 생기게 된다. 잠언 19:11에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고 되어 있다. 화를 다스려야 한다. 또한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미를 살리고 좋은 벗을 사귀며 훌륭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비굴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운동을 통해 몸을 단련하여 건강한 정신을 갖는 일이다.

그런데 훌륭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스트레스를 쉽게 극복해 나감을 볼 수 있다. 교회를 통해 좋은 형제자매를 만나 교제하고 서로 도와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즐거움을 맛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가 날 때에도 주님께 하소연하여 마음의 화를 해소하는 비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적은 일에도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심으로 알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니 불평이 쌓이지 않는다. 그리고 의도했던 일이 잘 되지 않아 남이 보기에 엄청난 좌절을 겪고 있지만 이런 일도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 없이 이를 극복해 나간다. 오히려 시련을 당할 때마다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스트레스는 저만치 물러가고 마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오히려 나의 능력배양과 인격성숙의 기회로 보고 당황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처하여 적극 활용하면 더욱 빛나는 삶으로 엮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 15:13).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처럼 근심거리는 주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인으로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을 소유하도록 해 보자.

출처 :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중에서 **창조**

그랜드캐년 새로 바라보기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 골로새서 2:8, 새번역

콜로라도 주의 그랜드캐년은 자연세계의 놀라운 경이로움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가장자리와 강에서 바라보노라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숨 막히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랜드캐년은 아름다움의 아이콘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능한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대한 장엄한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광범위한 물 아래에서 퇴적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캐년의 아름다운 암층은 대홍수시기에 세상을 격동시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강물에 의해서는 결코 깎일 수 없었을 1,500미터가 넘는 깊이의 캐년 그 자체가 대홍수로 물이 가득 찬 커다란 자연적 댐이 갑자기 붕괴되어 엄청난 수력 괴물이 바다를 향해 노호하며 흘러내려가면서 그 길을 따라 깊게 뚫던 때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오늘날 그곳에 서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오래 전에 “...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던” 한 시기를 회상하게 합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창세기 6:5,13,1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랜드캐년의 독특한 장엄함에 말없이 놀라며 응시할 때, 우리들은 시편기자의 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시편 46:10)



(사진 1)

장엄한 증거를 보여주는 그랜드캐년
(대구지부 제공)

*역주) 노아의 대홍수를 나타내는 히브리어인 ‘맛뿔(Mabbul)’과 헬라어인 ‘카타클루스모스(Kataklysmos)’는 일반적인 지역적 홍수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나홀(Nahor)’과 달리 노아의 대홍수에만 쓰이고 있다.

대홍수 후, 거대한 대륙과 산맥이 전지구적 홍수로부터 융기하기 시작했을 때(창세기 8:3-5), 막대한 균열이, 즉 현재 애리조나 주의 그랜드캐니언이 형성되었습니다. 내지의 물(inland waters)이 새로 깊어진 해양분지를 향해 빠르게 흘러내려가면서 대홍수 기간 동안에 퇴적된 진흙, 실트*, 및 모래로 구성된 지층을 급격하게 1,500미터 이상(5,000피트)이나 깊게 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시편 104:8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해양분지]는 내려갔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 빨리 가며”(7절).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동안 급격한 매물로 수십억의 동식물이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이 피조물들은 “...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로마서 5:12;8:20)는 말씀처럼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행성의 다른 모든 주된 지형학적 지물처럼, 그랜드캐니언도 고요하기는 하지만, “... 그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베드로후서 3:6)라는 엄청난 사실에 대해 뚜렷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극적인 시각적 보조물들이 세상을 만드셨고(요한복음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그와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로 우리를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사진 2)

마블캐니언의 Eminence Break Trail

(www.arizonahandbook.com에서 다운)

* 실트(silt): 입경 0.005~0.074mm의 가는 모래 **창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ssoya89@hanmail.net)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